

신상우호 세대교체 9개월만에 동아시안컵 20년 한 풀었다

대회 최종전서 대만에 2-0 승리... 중국·일본 제치고 우승
지난해 10월 지휘봉 잡은 신상우 감독... 신구조화로 값진 결실
2005년 초대 대회 이후 20년만에 동아시안컵 패권 탈환

‘신상우호’ 여자축구 국가대표팀이 20년 만에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우승을 달성했다.

세대교체라는 과업을 수행하는 가운데에서 거둔 값진 결실이다.

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여자축구 대표팀은 16일 오후 7시30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만의 2025 EAFF 동아시안컵 여자부 최종 3차전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최종전 결과 한국, 일본, 중국이 1승 2무로 ‘승점 5’ 동률을 이뤘다.

동아시안컵은 승점이 같은 팀들을 ▲상대 전적 ▲골 득실 ▲다득점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한중일은 서로 맞붙은 경기에서 모두 비겨 상대 전적과 골 득실로는 순위가 같아졌지만, 다득점에서 한국(3골)이 중국(2골)과 일본(1골)을 제치면서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신상우호는 2005년 첫 대회 이후 20년 만에 동아시안컵 왕좌를 탈환하며 기쁨을 만끽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작년 10월 콜린 벨 감독 후임으로 신 감독을 선임하면서 새판을 짜다.

‘FIFA 랭킹 21위’ 한국은 세계적인 강호들과의 원정 경기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았다.

지난해 일본(7위·0-4 패), 스페인(2

위·0-5 패), 캐나다(8위·1-5 패) 등에 3연패를 당했지만, 정상급 팀들과의 격차를 확인하는 기회였다. 올해 2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친선 대회 ‘핑크레이디스컵’에 참가했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세계 51위·3-0 승), 태국(세계 46위·4-0 승), 인도(세계 70위·3-0 승)에 3연승을 거두며 정상에 올랐다.

이후에는 호주(15위·0-1 패, 0-2 패), 콜롬비아(18위·0-1 패, 1-1 무)와 평가전을 치르며 조직력을 끌어올렸다.

신상우호는 출항 이후 첫 공식 대회인 이번 동아시안컵에서 우승을 목표로 했다.

한국은 2005년 우승 이후 2015년과 2019년 대회에서 거둔 준우승이 최고 성적이었다.

일본과 중국은 물론 이번 대회엔 참가하지 않은 북한까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강호들을 상대로 늘 열세였다.

대회 개막에 앞서 신 감독은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우승이 목표”라며 “FIFA 랭킹은 중국과 일본이 높지만, 국내에서 하는 대회고 무더운 날씨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은 이번에도 열세로 평가됐지만, 우승 후보였던 중국과 일본에 연달아 무승부를 거두는 이번을 연출했다.

지난 9일 중국과의 1차전에서 전반 46



16일 경기수원시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여자부 시상식에서 우승국 대한민국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뉴스시스

분 장승기(경주한수원), 후반 49분 지소연(시애틀·미국)이 터뜨린 천금 같은 득점으로 2-2로 비겼다. 장승기와 지소연은 각각 전후반 추가시간에 골망을 가르며 팀을 패배에서 구했다.

나흘 뒤인 13일 일본과의 2차전에서 후반 41분 정다빈(고려대)의 극적인 동점골로 1-1 무승부를 거뒀다.

2005년생 유망주 정다빈은 후반 26분 교체 투입된 뒤 15분 만에 동점골을 넣으며 신 감독 믿음에 부응했다.

그리고 이날 대만과의 3차전에서 지소

연, 장승기의 연속골에 힘입어 2-0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다.

신 감독은 부임한 지 약 9개월 만에 동아시안컵 트로피를 가져오며 20년 동안 이어졌던 우승의 한을 풀었다.

이번 우승이 값진 이유는 또 있다. 한국은 전력상 열세로 평가됐을 뿐만 아니라 주요 선수들까지 이탈한 상황이었다.

주장 이영주(경주한수원)와 최유리(버밍엄·잉글랜드)가 개막에 앞서 부상 이탈했고, 해외로 공격수 전유경(볼레·노르웨이)은 중국전 부상으로 소집 해제됐다.

신 감독은 케시 페어(엔젤시티·미국)를 비롯한 어린 선수들을 전면에 내세워 공백을 메웠다.

2차전 숙명의 한일전에서 종료 직전 집중력을 발휘해 동점골을 터뜨린 정다빈이 대표적이다.

김민지, 정민영(이상 서울시청), 현승기(경주한수원), 문은주(화천KSPPO), 김신지(AS로마·이탈리아) 등이 신 감독에게 기회를 받아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펼쳤다.

여기에 ‘한국 축구 전설’ 지소연은 물론 이금민(브라이튼·잉글랜드), 장승기(경주

한수원), 김혜리(우한·중국) 등 베테랑이 어우러져 완벽한 신구조화를 선보였다.

“베테랑과 신예의 조화가 잘 이뤄지고 있다. 조직적인 부분에서 더운 날씨에도 잘 준비했다. 그래서 우승을 목표로 잡았다”는 신 감독의 자신감이 우승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신상우호는 개최국인 동아시안컵 우승으로 세계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날갯짓을 이어갔다.

여자대표팀은 내년 3월 호주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을 목표로 담금질을 이어간다. /뉴스시스

“축구할까, 야구할까?” 장성군 ‘장성호 체육공원’ 주목!

7월부터 공공체육시설 운영... 축구장 2면, 야구장 1면 등 갖춰

장성군 장성호 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이 이달부터 대관신청을 받는다.

장성읍 아래(장성읍 용강리)에 위치한 장성호 체육공원은 시설면적 4만 9800㎡ 규모에 축구장 2면, 야구장 1면, 샤워장,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다.

지난 4-5월 장성 최초로 열린 제64회 전남체전, 제33회 전남장애인체전 개최 준비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하절기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축구장은 3시간, 야구장은 2시간까지 대관할 수 있다.

사용료는 4만 2000원에서 9만 2000원 사이다. 평일과 주말·공휴일 요금이 다르며, 장성군민은 3만-6만 6000원 선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장성지역 체육회 가맹단체나 스포츠클럽에는 6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대관 신청은 사전에 체육사업소와



일정을 협의한 뒤 사용허가신청서와 행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체육사업소 시설운영팀(061-390-8473)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호 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이 건전한 스포츠 여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영광군, 역대 최대 규모 전국 중별 농구선수권대회 개최

지난해 138개 팀 참가기록 경신한 150개 팀 참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하나은행 제80회 전국 남녀 중별 농구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80회를 맞이한 중별 농구선수권대회는 스포터움 국민체육센터 및 실내보조체육관, 범성고등학교, 흥농초·중학교 실내체육관 5개소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농구협회와 전라남도농구협회, 영광군농구협회가 주최·주관하며, 남녀 초·중·고·대학부와 여자 실업부 등 10개 부에 걸쳐 전국 150개 팀, 3,000여 명의 선수 및 임원들이 참가한다. 이는 작년 138개 팀 참가기록을 1년 만에 또다시 경신한 전국 남녀 중별 농구선수권대회의 역대 최대 규모임에 따라, 각 부별 국내 최강자를 가리기 위한 경쟁이 더욱더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 일정은 각 부별 예선을 거쳐 결선, 8강전, 준결승, 결승전 순으로 진행되고, 대한민국농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경기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튜브 채널 “KBA Live”를 통해 경기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으며 영광군민을 포함한 모든 관람객은 경기장에 방문하여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한편, 영광군은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하계 방학 시즌을 맞아 8월 5일부터 하계 전국 초등부 축구리그, 8월 15일부터 전국 초등학생 테니스 대회, 8월 23일부터 천년의 빛 영광 배드민턴 대회 등 다채로운 종목대회를 연이어 개최함으로써 스포츠 메카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방문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영광/이현식 기자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 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 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 븐 커머스레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 경과 운암산, 중외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세입 운영 3년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 GS건설
시공/인테리어/건설 HDC현대산업개발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